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7월 1일 (첫째 주일)

성경본문 : 행19장 28-32절

설교제목 : “어찌하여 모였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크고 작은 소동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는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쫓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주님의 따르는 제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 자신만의 풍족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살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쫓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지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 역시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짐보다 나누고 섬기는 삶이 더 부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작고 큰 소요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교회 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오로지 자신의 교회의 성장만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지역 사회에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요한 교회는 뜻은 흠어주고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 공동체가 작은 소요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의 성장만을 위해 지역사회에 존재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은장색 데모드리오의 선동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의 선동에 동업자들은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분노에 차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계속 외치면서 거리로 뛰어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력으로 그 두 사람을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러한 난리 통에 수많은 인파들이 덩달아 온 세공장이 무리의 뒤를 쫓아 연극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 에베소 연극장은 2만 5천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집회 장소였습니다.(28-29절)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자마자 즉각 연극장으로 들어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제자들과 평소 친구로 지내던 이들의 반대로, 바울은 자신의 결심을 꺾게 되었습니다.(30-31절) 그런데 야외 연극장에 몰려든 성난 군중들은 크게 함성을 질러댔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왜 그곳에 몰려왔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소리치르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32절) 이 얼마나 우매한 모습입니까? 옛 말에 **‘남이 장에 가니 거름지고 장에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나만 자기도 아무 생각없이 덩달아 따라나서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말입니다. 아마도 야외 연극장에 모여든 에베소 군중들에게 꼭 맞는 속담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일 지상의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자기의 성장과 풍족함을 위하여만 존재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수많은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교회에 모인다고 한들, 그러한 교회는 단지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자신이 왜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영문도 알지 못하는 군중으로 가득 찬 거대한 에베소 연극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공동체는 왜 자신들이 함께 모여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선교적 기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서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권능은 우리 자신의 중심성을 깨고,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동력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기 냄새가 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나라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계21:2)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여 주님오실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감수해야 할 작고 큰 소요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결코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맥추절을 지키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에 맞이하는 접점에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반기의 삶도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하반기에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받아야 할 크고 작은 소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 2)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2018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